세움식품 분쟁 대응 · 자문 준비 요약

사건과 현재 상태

한결물류가 운송을 맡은 세움식품 냉장 제품 18팔레트 건이다. 바른운송 차량이 운행했다. 모두 가명이며 이 문서는 사실 정리와 자문 준비용 초안이다. 최종 판단은 변호사·법무팀이 한다.

상대 주장과 금액

세움식품은 제품 가액 4,200만 원을 주장하고, 8월 운임 1,860만 원을 보류했다. 두 금액은 성격이 달라 손해로 합산하지 않는다. 계약 발췌 제9조의 2,000만 원 한도와 예외 적용은 미판단이다. [E01 메일2·6·11·12, E06 제9조]

시각과 기록

센터 메일은 8/6 07:40 도착, 대화는 07:42 도착 발언, 메모는 7시 반쯤, 인수증은 인수 일시 07:50이다. 도착·발언·인수는 서로 다른 기록이다. 아직 하나로 확정하지 않는다. [E01 메일8, E02 첫 메모, E03 07:42, E05]

온도 검산

419행에서 동일 중복 7행을 제외하면 412시각이다. 예상 421시각 중 03:04~03:20의 9시각이 없다. 범위 이탈 관측은 91개이며 센서 앞 최고7.9℃, 뒤 최고9.1℃다. 제품 온도8.5℃와 혼동하지 않는다. 관측 수로 지속시간이나 손상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. [E04, E05]

세움식품 분쟁 대응 · 자문 준비 요약

자문 전 먼저 받을 것

폐기 확인서 자체와 제품 명세, 기록기 원본·측정 방식, 출입 기록·인수증 원본, 전체 계약·변경 합의, 운임 청구일과 수신 자료, 내용증명 우편 수령 자료를 요청한다. 메일에 첨부했다고 쓰인 문서가 이 자료 묶음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. [E01 메일9·11·12, E06]

법무팀에 넘길 질문

우리 측 회신의 법적 의미, 배상 한도와 예외, 협력사 관련 책임, 통지와 운임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. 9/17은 상대 요구일이며 법정 대응 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. [E01 메일3·11·13·14, E06 제8·9·10·12조]

담당과 운영

정 과장은 원자료 요청, 하 대리는 금액 근거 수집, 법무 담당은 자문 일정과 검토 범위를 정하는 실습용 역할이다. 내부 확인일은 협의 후 적는다.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 결과에 확인자·확인일·수정 이유를 남긴다.